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3월 16일>은 ‘선생이 태어난 날’이다. 이 날은 사람이 짜고 계획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난 날>이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이 실천한 대로 성자가 승천한 날>이다.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성서에 한 말씀대로 행한 날이다.
2.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이 날 새벽이다.
3. <휴거>는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하는 것과 같다. 결혼했어도 결혼기념일을 계속 맞으면서 “우리 더 멋있게 살자, 더 많은 것도 사고 더 만들고 누리자!” 하듯이, <휴거>도 해마다 ‘차원을 높이는 것’이다.
4. 섭리의 신부들은 이 시대급의 구원을 이루었어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차원을 높여가야 된다. 아직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시대 신부가 못된 자들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면 첫 번째 휴거를 맞는 것이다.
5. <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7번째 횃수를 맞았다. 2015년은 지구 생기고 첫 번째였다. <휴거 기념일>은 6번째로 맞는 날이다.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 이는 자기 주소 알고, 자기 사는 집을 알듯 기본적인 것이다.
6. <휴거의 차원을 높이는 자들>이 많지만, <휴거 되는 사람>은 아

무래도 적다. 전도된 자, 말씀을 배우고 시대를 깨닫고 확실한 자로 되기 때문이다.

7. 우리는 누가 휴거 되는지 대강만 알지, 확실한 것은 모른다. 하나님만 알고, 성령만 아신다. 선생도 꼬치꼬치 혀가 닳도록 물어 봐야 안다. 일반 사람치고는 잘 모른다. 그러나 계시를 받는 자는 안다. 꿈으로도 계시 받고, 꿈 말고도 말씀 들을 때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지혜로 자신을 깨닫고 알게 된다.

8. 오늘 아침에는 <휴거에 대한 계시>를 꿈으로 받지 않고 ‘지혜와 깨달음’으로 받았다. 선생 자신을 위해서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휴거의 차원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알아서 해왔다. 이것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과 성자와 함께 해왔다.” 하셨다.

9. 올해 해온 것을 보면 휴거는 어떻게 차원을 높이는가 하니,
- 첫째 <기도>를 해야 차원 높인다.
-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차원을 높인다.
- 그 다음에 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대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원을 높여간다. 그러기 위해 금년도 말씀을 해주었다.

10. <휴거>라는 것은 개인이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도 차원을 높인 것이지만, ‘전체 차원’을 같이 높여주려면 전체를 높여야 된다. 전체를 높이는데 그중에 앞에 간 사람도 있고, 약간 뒤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리므로 하나님은 전체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11. <새벽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오후 행사 때는 행사만 하기 때문이다. 결혼 때는 결혼식만 한다. 결혼식에 때는 신랑과 신부를 위해 말씀만 해준다. 새벽까지 ‘어떻게 하라’ 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다. 점심 때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휴거 되게 말씀 안 한다. 그때는 이미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결혼 예식만 한다.” 하셨다. 휴거 된 사람들과 오늘 휴거 될 사람들의 예식만 한다는 것이다.
12. <시대 말씀을 듣고 삼위일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점수에 따라 휴거 된다.
13. 한 번에 눈이 떠서 약빠른 휴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해서 휴거 된다. 지혜로워서 슬기로워서 ‘그동안 해놓은 것’을 갖고 하는 것이다.
14. <슬기 있는 자>는 ‘등불을 준비’해서 맞는다. <등불>은 ‘사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신부가 준비할 것이 사랑이다. 이를 등불로 비유한 것이다.” 하셨다. 물론 밤중에 맞으니 등불도 필요하지만, ‘사랑’에 준비됐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했으니, 신부는 무조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없는 신부>를 신랑이 취할 수가 없고 같이 살 수가 없다. 휴거 역사도 똑같다.

15. 전체 휴거 차원을 높이기 위해 첫 번째로 <새롭게 하라>고 말씀 주었다. 거기서부터 휴거 차원의 역사를 높여놓고 휴거 날을 맞고 그 수준으로 사는 것이다. 힘들어 못 살면 또 떨어질 것이다. <사는 것>이다. <인생>은 언제나 ‘연속적인 삶’이다. <연속적인 삶>이 안 될 때는 처지고, 시계 멈추듯이 멈춘 것이다.
16. <시계>같이 살아라. <시계>는 멈추지 않고 해야 살아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준다. 이와 같이 <신앙의 세계>는 고달파도 힘들어도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다.
17. 금년도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셨다. 두 번째는 새롭게 하면 <이상세계>라고 말씀해주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다. 지켜라!> 말씀하시고, 네 번째로 <간절한 기도다> 말씀하시며 이상세계와 휴거 역사를 준비해왔다.
- 이렇게 <말씀>으로 ‘휴거 역사’를 높이는 것이다. <기도와 말씀과 행함>으로 높인다.
18. 간절한 기도나라. 간절한 기도가 어디까지인가는 이론도 필요 없다.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본인이 해보면 안다. 밥도 양이 차도록 많이 먹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이론이 필요 없다. 먹어봐야 안다.
19. 간절한 기도다. 휴거 전 2014년에도 이 말씀이 많이 선포됐다. 선생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자께서 그렇게 연속적으

로 “간절한 기도다. 서둘러라. 그리고 부지런히 빨리하라” 하신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의 큰 행사를 한 것이 <휴거 행사>이다.

20. <휴거>는 어떠한 이론이 아니고 ‘실제’였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 역사’였다.

21. <이상세계>는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할 때 최고 이상세계가 된다. 새 집을 짓는 것도 세상적인 이상세계지만, <하나님의 이상세계>는 집이고 밥이고 뭐이고 상관없이 먼저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상세계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궁이나 초가집이나 어느 곳이나 천국이다 하신 것이다.

22. 금년도 다섯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했다.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안 된다. 사탄이 채간다, 물어간다, 끌어간다, 잡아간다, 악한 자가 잡아간다, 악평자가 잡아간다.” 하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했다.

23. 금년도 여섯 번째는 <잃은 양을 찾아라> 말씀했다.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잃은 양들을 찾아라. 잃은 양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휴거 시대에 같이 참여하게 하라!” 한 것이다. 그래서 선생도 잃은 양을 찾고 다 같이 본격적으로 찾아갔다. 전화를 100통씩 하면서, 수천 명의 생명들을 서류로 다루면서 해왔다. 안타까운 것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휴거는 천 년 역사이니 휴거 날 끝나고 또 하면 된다. 그 대신 빨

리해야 좋으니 제 때 해야 된다.

24. 금년도 일곱 번째는 <주를 믿어야 한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외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보낸 자, 심부름꾼을 믿어야 돼. 내가 그를 통해 심부름을 시켰으니 믿어야 너희가 그 말 듣고 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느냐.” 하셨다.

휴거 차원을 높일 때 주를 믿어야 된다. 처음으로 휴거 될 자도 주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크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고 새 시대와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한 자는 없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고 신약시대 참여를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믿지 않고는 구약 역사의 율법 속에 있을 수 없다. 이 시대도 똑같다. 그래서 ‘주를 믿고 알아야 한다’ 한 것이다.

25. 주를 믿고 알고 따르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하나님이 천둥 번개 치는 말씀과 계시를 주셨다. “빛을 발하라. 너희가 나의 보낸 자를 믿고 말씀을 들었으면 빛을 발하라. 저마다 개성의 빛을 발하고 시대의 빛을 발하라.” 외쳤다.

모두 이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휴거 역사를 이룬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미리 계획 짜고 한 것이 아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쥐서 한 것이다.

26. 빛을 발하는 데 안 하는 사람이 있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성령과 주와 같이 부지런하라> 하고 하나님이 또 소리치셨다. 게으르면 안 된다. 빛을 발하는데 부지런해야 한다.

27. 금년도 열 번째로 <온전해라> 말씀하셨다. 이제 휴거 날이 가까웠고, 휴거 역사가 가까워지니 온전해라 한 것이다. <온전한 자>가 ‘휴거’ 된다.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그래야 하나님과 일체 된다.

28.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고 연애하고 일체될 때는 하나라도 원하는 것을 안 하면 등 돌린다. 온전할 때 짹짹이 맞고, 천하일색 짹이야 한다. 그러나 ‘하나’ 만 안 돼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호리라도 꺼림이 있으면 안 된다. <결혼>도 서로 원하는 것이 하나가 안 맞으면 안하듯이 <휴거>도 완전해야 된다. <원하는 것 바라는 것>에 ‘완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야 된다. 이는 사람으로서 다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29. 하나님은 때에 해당되게 조직적으로 딱 딱 딱 외쳐오셨다. 선생이 미리 써놓은 것은 없다. 미리미리 기도만 하고 준비만 했더니 말씀을 주셨다.

30. 금년도 316을 맞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전도, 네 몸도 귀하게 써라>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그 몸부림쳐서 사놓은 성전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전을 사서 꾸몄다. 성전을 살 때에 자기 집 사듯이 생명을 내걸고 샀다. 여러 사람이 모아서 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써라.

31. 선생이 천막에서 새벽기도를 하다 40일 조건 기도에 들어가면

서부터는 성전에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열흘 동안 안 갔다가 혼나는 일이 있었다.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 말씀하셔서 계속 약속대로 하고 나니, 어느 날 또 말씀하시길 “이렇게 지어놓고 왜 안 쓰냐. 주일날 행사처럼 예배만 드리고 갈래? 수요일 날 왔다가 두 번 쓸래? 새벽마다 계속 써라. 그렇지 않고는 흑자를 못 낸다. 너무 엄청나게 수고와 애씀이 정성이 들어간 만든 이 성전 아니냐. 휴거관 아니냐. 귀하게 써라. 네가 써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오잖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열심히 새벽에도 3시에 기도하고 온 것이다. 지금 말씀은 모두 그때 준 것이다.

32. <성전들>을 귀하게 써야 된다. 그래야 <흑자>를 낸다. 안 쓰면 흑자가 안 나온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곳이 문을 닫았다. 문 닫은 집들을 보니, 그 큰 곳이 썩어버리고 곰팡이가 나고 냄새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문을 안 닫고 번질번질 번쩍번쩍했다. 바로 ‘스타카페’였다. 작아도 번쩍번쩍했다. 역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커도 운영이 안 되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섬리인들은 작아도 운영이 되니까 문을 안 닫았다. 운영이 안 돼서 문 닫은 종교들이 너무 많다.

33. <휴거>는 ‘영’은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고, ‘육’은 땅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위해주고 섬기며 낙으로 삼는 것이다. <예수님의 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휴거>다.

34. <휴거>를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못 하는 것이다. <휴거>를 알면 한다.

- 사람들 삶에서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면 휴거된 것이다.
- 결혼을 못 해서 안달 떨던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휴거 된 것이다.
- 셋방살이로 살다가 집을 짓고 살면 휴거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휴거>는 ‘시대 말씀을 듣고 절대 성부와 성자를 모시고 하나님이 보낸 자와 일체 돼서 사는 것’ 이다. 기쁨과 이상세계다.

35. <성전>이 귀하다. 귀하게 여기고 쓰라. 그렇게 성전을 귀하게 만들었는데 성전이 귀한 것을 잊어버렸다. 코로나 때문에 성전을 잊어버린 것이다.

36. <너희 몸>이 그렇게도 귀하니 몸을 귀하게 여기고 쓰라. <하나님이 취하는 사랑의 몸>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냥 아들이나 종이 아니고, <신부로 같이 먹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 몸을 귀하게 여겨라.

37. <휴거의 비밀>은 ‘사랑’ 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절대 사랑하는 것이다. 이는 변함이 없다.

38. 또 하나의 <휴거의 비밀>은 ‘휴거를 귀하게 여겨야’ 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는 몸으로 만들어라.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한다. <멸한다는 것>은 ‘버린다. 등 돌린다. 하나님과 성령이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몸을 귀하게 만들라고 성서(고전 3:16~17)에 말씀했다.

39. <너희 몸>이 ‘성전’이다. <성전>은 거룩하고 거룩하니 귀하게 써라. 이 시대 너희 몸은 신부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몸이니 귀하게 써라.

40.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4천 년 만에 예수님 때 자녀급으로 복직했다. 아들 노릇을 하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격 따라 성장이 됐으면, 이제는 신부 몸이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다시금 새로운 역사, 천 년 역사 혼인잔치를 한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이다. 선생도 이를 믿고 한 것이다.

41. 귀하게 여겨야 휴거 된다.

42.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것은 몸부림쳐서 산다. 그런데 사놓고서 자기도 모르게 또 팔아버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인생은 변화무쌍하도다. 그래서 인생은 믿을 것 못 된다. 오직 나 여호와를 믿으라고 외쳐줘라.” 하셨다.

43. <인생>은 ‘변화무쌍’하다. 그렇게도 좋아서 샀던 수석도, 그렇게 좋아하던 집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도, 어떤 물건도, 보물도 평생 영원히 갖고 있을 줄 아는데, 없어져버리고 팔고 만다. 인생은 역시 마음이 변화무쌍하다. 하나님까지, 주님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44. 휴거의 비밀은 ‘가치’ 다. 계속 귀하게 여기면 계속 갖고 있는 것이다.
45. <처음 사랑>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께서 주신다. 수석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팔지 않는다. ‘돈’ 보고 파는 사람은 장사꾼이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파는 사람은 걸작품가이며 예술가다.
46. 선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는 이유는 천년 동안 귀하게 여기고 안 판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월명동에 들어오는 작품은 못 팔게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를 보고 자기 것을 천 년 동안 간수하고 싶다고 선물로 갖다 놓은 것이다. 귀하게 여길수록 또 갖다 준다. 어제도 휴거 날을 중심해서 선생 생일날이라고 돌을 갖고 왔다. 돈 주고는 못 살 정도인 것을 갖다 준다.
47. <휴거>를 목숨 걸고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데 안 줄 수 있냐.” 하고 차원을 높여주고 휴거시켜 주신다. 이는 모든 것을 갖춘 상황 속에서 하는 얘기다. 아무것도 안 갖추고 귀하게 여기면, 이는 문제는 모르고 답만 아는 사람이다. 문제를 모르고 쓰는 답은 그 사람이나 써먹지, 다른 사람은 써먹지 못한다.
48. <휴거 차원>은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기도와 말씀으로 행해왔다. 이를 알아라. 우리는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순서에 의해서

구상대로 해 온 것이다.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해 왔다. 앞으로
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 휴거 됐어도 휴거 차원을 높여서 그 차
원에서 살도록 40일 기도가 끝나면 또 기도에 들어간다.

49. <성령>은 계속 이끌어주시고, 역시 오늘 316 새벽까지 이끌어
주셨다.

50. 각자 개인들의 기도와 말씀과 행함에 따라 더 좋은 차원의 휴거
가 개성대로 이뤄지고 있노라.

51. <휴거의 비밀>은 ‘사랑’이다. <창조 목적의 비밀>도 역시
‘사랑’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행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
나님의 능력만큼 다 사랑해주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대로 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 극적인 사랑의 역
사다.

52.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사고 싶
어서,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것이다. 그래야 마음 놓고 좋아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천지창조의 목적인 것을 배웠다. 이것이 천 년
동안 전해야 될 말씀이다.

53. 너희는 <시대>를 잘 타고났다. 이 시대를 타고났다. 우리가 만
일 <구약시대> 때 태어났으면, 율법 말씀을 듣고 모세를 따라
서 ‘그 시대 종급’에 해당되는 뜻을 이뤘다. 아담이 타락한
후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연대죄를 삭감시키고자 의를 쌓으
면서 사는 역사가 됐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해도 ‘아들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러나 저러나 ‘신부 취급’을 받는다.

54. 사랑하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사랑>을 ‘부속품’으로 써먹지 말아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어차피 사랑할 것을 왜 속보이고 하느냐. 어차피 투자하려면 한 군데 다 투자하는 것이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 없애면서 사는 것이다. 대범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할 수 있는 것이다.

55. <휴거>는 개성대로 하기 때문에 ‘많이 했다, 조금 했다’ 할 소리가 없다. 행한 대로 줬기에 그 나름대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56. <휴거를 한 자>는 ‘모든 것을 이룬 자들’이요, 그 가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값없이 버린 자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휴거를 지키려면 여러 계명을 지켜야 한다. 사랑의 계명도 못 지키고 다른 것도 못 지키면 안 된다.